吏讀 '-是等'攷*

金裕範**

1. 序言

차자표기의 연구는 그 동안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의 발굴과 그에 대한 연구에 힘입어 이제 입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입체적인 방법'이란 향가, 이두, 구결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차자표기 자료들을 서로 연계시켜 그들 사이의 공통성과 관련성을 포착하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차자표기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연구방법이라 하겠다.

본고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이두 '-是等'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여 이것의 讀音과 意味, 그리고 文法的 構成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是等'은 특히 문법적 구성에 있어서 주목되는 이두 형태로 국어 文法史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본고는 1997년 8월 19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되었던 제17회 구결학회 공동 연구회에서 「<趙溫賜牌敎旨>의 吏讀 一考」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관동대 朴盛鍾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謝意를 표한다.

**고려대학교

있다. 이를 살피는 데 있어서 이두뿐만 아니라 향가와 구결에서 발견되는 관련 형태들을 함께 고찰하는 것은 논의를 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본고에서 필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이두 형태에 대한 완벽한 해독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해독하는 과정을 통해 이두에 대한 이해와 더 크게는 차자표기에 대한 안목을 넓혀 보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2. 資料 紹介

이두 '-是等'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조선 초기 古文書 자료인 <趙溫賜牌敎旨>와 <曺恰賜牌敎旨>, 그리고 고려시대 고문서 자료인 <尙書都官貼>과[1] <慶州司首戶長行案序>가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필자가 찾아볼 수 있었던 자료들로 이 밖에도 '-是等'이 쓰인 또 다른 자료들이 더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 古文書 자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1. 趙溫賜牌敎旨

<趙溫賜牌敎旨>는 1399년(定宗1) 2월에 定社功臣 趙溫(1347~1417)에게 土地(田畓) 151結 38負를 내려주는 賜牌이다.[2] 太祖 李成桂를 도

1) 南豊鉉(1992)는 이를 '柳璥功臣錄券'이라 칭하였다.

2) '賜牌'란 고려·조선조에 임금이 왕족 또는 공신에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할 때, 그 소유에 관한 문서를 주는 것 또는 그 文書(즉, 敎旨)를 일컫는다. 한편 千惠鳳(1972)로부터 張東翼(1985:145)와 徐鍾學(1995:22)에서는 이를 '趙溫定社功臣錄券'이라 하여 문서 유형 중 '錄券'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특전 등을 내려줄 때

와 朝鮮 建國에 功을 세웠던 漢川君 趙溫은 第一次 王子의 亂 때에는 太宗 李芳遠을 도와 定難反正의 功을 세웠는데, 이 賜牌는 바로 이를 褒賞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千惠鳳(1972)의 解題에 의하면, 이 文書의 길이는 82.2㎝, 너비는 80.4㎝이며 楮紙에 墨書하고 本文 緖頭의 '王旨' 및 '漢川君 趙溫'의 글자 위와 本文 末尾의 '王旨安印' 바로 아래에 11.8平方㎝의 「朝鮮王寶」를 세 개 安寶하고 있다.[3] 그리고 文書의 끝에는 이 賜牌의 發給에 관여한 擔當承旨의 職銜과 姓, 手決이 있다. 이는 朝鮮初 功臣田의 賜與 形態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훌륭한 史料的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王旨 <1>

推忠協贊開國定社功臣資憲大夫商議門下府事同判都評議使司事義興軍府左軍同知節制使漢川君趙溫 <2>

[厠矣段]推誠協謀定難反正載安 <3>

宗社[爲乎]功勞重大可賞[是去有等以]功臣錄券付楊州府土古漢陽業(今彩)字丁伍結肆束古見州土文(今績福寶)字丁拾陸結參拾參負參 <4>

(…중략…)

原任內松莊土張(今罪伐)字丁伍結合田畓幷壹佰伍拾壹結參拾捌負[乙]賜與[爲臥乎事是ホ][4]子孫傳持鎭長喫持[是

쓰는 것이 '王旨(敎旨)'라고 한다면 '錄券'은 왕명을 받들어 功臣都監에서 발급하는 功臣으로서의 證書이므로 이 둘은 엄연히 구분되는 문서양식이다. 그러므로 이 文書를 '趙溫定社功臣錄券'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朴盛鍾(1996)에서는 이 文書의 크기가 세로 82.4㎝, 가로 80.7㎝, 그리고 「朝鮮王寶」의 크기는 사방 11.7㎝로 보고 되어 千惠鳳(1972)의 해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이 문서의 영인본으로는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2~'93指定篇)』이나 李榮薰(1997)의 천연색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

4) 'ホ'은 '等'의 草書體로 '尒・ホ(곰)', '孙・孙(며)' 등과 함께 正字로 쓰이지

良於爲敎] <8>
建文元年貳月初八日伏奉 <9>
王旨安印 <10>
都承旨通政大夫經筵參贊官兼尙瑞尹修文殿直學士
知製 敎充藝文春秋館修撰官知吏曹事臣李 (手決)
<11>

※ [ ]는 吏讀, ( )는 小字로 된 改號, < >는 行數를 표시.

여기에는 '矣段', '爲乎', '是去有等以', '乙', '爲臥乎事是ㅂ', '是良於爲敎' 등과 같은 형태의 吏讀들이 나타난다. 앞의 네 吏讀는 다른 이두 자료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解讀에 별어려움이 없지만, 나머지 두 吏讀는 흔히 나타나는 형태도 아니고 그 文法的 構成의 파악도 容易치 않아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朴盛鍾(1996:21)은 4행의 '…功臣錄券付…'에서의 '付'도 '덧붙여' 또는 '의거하여' 정도의 의미를 갖는 吏讀字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2. 曺恰賜牌敎旨

<曺恰賜牌敎旨>는 1401년(太宗1) 3월에 中訓大夫 知安山郡事 曺恰(?~1429)에게 田地 약 20結과 婢 2口를 賜與하는 문서이다. 이것은 曺恰이 第二次 王子의 亂 때에 太宗 李芳遠을 호위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

않은 몇 안되는 吏讀字 중 하나이다. 또한 'ㅂ'은 音讀口訣 資料들에서 '둘, ᄃᆞ, ᄃᆞ' 音을 표기하는 口訣字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문서 전체가 정연한 楷書體로 씌여진 <趙溫賜牌敎旨>에서 '-是等'의 '等'만이 유독 草書體인 'ㅂ'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고 하겠다. 한편, 본고에서는 '等' 또는 'ㅂ'에 대해 이것의 형태를 주로 'ᄃᆞ'로 언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等'이나 'ㅂ'은 'ᄃᆞ'와 'ᄃᆞ' 두 형태 모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다.

鄭求福(1993)의 解題에 의하면, 이 文書의 지질은 壯紙의 韓紙로 길이는 80㎝, 너비는 71.7㎝이며 1행의 '賜' 및 2행의 '曺恰'의 글자 위와 8행의 '建文三年三月' 부분 위에 「朝鮮國王之印」를 세 개 安寶하고 있다. 그리고 文書의 끝에는 이 賜牌의 發給에 관여한 擔當承旨(이는 都承旨 朴錫命으로 추정되고 있음)의 職銜과 姓, 手決이 있다.[5] 이 역시 <趙溫賜牌敎旨>처럼 朝鮮初 功臣田의 賜與 形態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훌륭한 史料的 가치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2) 賜 <1>

中訓大夫知安山郡事曺恰 <2>
[汝矣段]其在庚辰捍衛寡躬[以]至今日[爲乎]功勞 <3>
可賞[是去有良ㅎ]水原任內楡梯地天字丁伍結貞 <4>
松地玄字丁伍結川寧地雲字丁[末]伍結廣州地鉅字 <5>
丁伍結奉常屬婢于斤伊完山府官婢福婢[爲等如]賜給 <6>
[爲臥乎事是等]子孫傳持[者] <7>
建文三年三月　　日伏奉 <8>
王旨安印 <9>
知申事翊戴佐命功臣通政大夫經筵參贊官修文殿直
提學知製　敎春秋館修撰官兼判奉常寺事知吏曺內
侍藥房事臣朴 (手決) <10>

※ [ ]는 吏讀, < >는 行數를 표시.

이 문서에 사용된 이두는 '-是等'을 제외하고는 크게 주목되는 것이 없는데, 다만 未達의 의미를 갖는 '末'이나 문장의 끝에서 종결의 기능

5) 이 문서의 영인본으로는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의 천연색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

을 담당하는 '者'가 쓰인 것이 눈에 뜨인다.

2.3. 尙書都官貼[6]

<尙書都官貼>은 1262년(元宗3) 6월에 尙書都官主事인 禹某가, 都兵馬記事인 池洪이 작성한 名貼을 토대로 衛社功臣인 柳璥에게 노비 10口를 賜給하는 시행문서이다. 이 문서는 尙書都官에서 노비를 사급한 부분보다 그 근거가 된 都兵馬의 名貼이 주가 되고 있다. 현재 原文書는 남아 있지 않고 1565년에 간행된 『文化柳氏嘉靖譜』에 全文이 轉寫되어 있어 문서 본래의 형태 및 판독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확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서의 형식은 첫 2행과 끝 3행만이 약간의 공간이 있을 뿐 每行 25자, 111행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總字數는 2,704자이다. 原文書에서는 行을 바꾸었을 宣旨·署名者 등도 행을 바꾸지 않고 모두 다음 행에 붙여서 간행되었고, 일반적으로 고문서는 每行 25자 미만이므로 본래는 현재의 111행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문서는 1258년(高宗45)의 戊午政變의 배경과 진행방향, 그리고 이후의 정국의 변화에 대해서 『高麗史』나 『高麗史節要』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무신정권이 동요되는 13세기 후반기의 경제·사회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史料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국어학적으로는 이 문서가 고려 중기 내지는 후기의 吏讀를 보여주고 있는데, 111행이나 되는 많은 분량과 후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이두가 여러 가지 사용된 고려시대의 吏讀 資料 중 가장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南豊鉉 1992, 李丞宰 1992 참조)

---

6) 이 문서의 판독과 해제는 전적으로 許興植(1982b·c, 1988)에 기대었다.

(3) 尙書都官貼 <1>
詹書樞密院事柳璥 <2>
當司准敎許文右官文[乙]成給[爲臥乎事叱段] … <3>
(…중략…)
八父奴永長母婢仍次伊[等乙良]官文[成是]給[爲臥乎事是去有<107>
等以]各後所生[幷以]子孫傳持使用[爲良於爲]出納成給[爲臥乎<108>
事是等] 右事須貼 壬戌六月 日主事禹 <109>
尙書 知部事 侍郎 侍郎 侍郎請暇 <110>
郎中 郎中 員外郎請暇 試員外郎 <111>

※ [ ]는 吏讀, < >는 行數를 표시.

여기에 사용된 吏讀에 대해 李丞宰(1992)에서는 '順可只', '將來', '將近亦' 등의 특이한 이두가 나타난다는 사실과 '敎是' 또는 '敎'가 동사 어간으로 사용된 예가 매우 많음을 지적하였다.

2.4. 慶州司首戶長行案序

<慶州司首戶長行案序>는 慶州先生案[7] 가운데 戶長先生案의 序文으로 이는 '倭寇擊退事實記'와 함께 戶長先生案에 실린 두 件의 이두 문서 중 하나이다. 慶州先生案이란 慶州를 治所로 한 오늘날의 慶尙道 및 慶州 지역에서 治民에 종사했던 인물들이 수록된 서책으로, 이 중 戶長先生案에는 慶州府의 역대 首戶長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8]

---

7) 이는 고유한 書名은 아니고 許興植(1982a)에서 慶州와 관련이 있고 慶州에서 보존되어 온 戶長先生案, 道先生案, 府尹先生案, 上詔文先生案, 講武堂先生案의 다섯 가지 자료를 묶어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자료들의 영인본으로는 亞細亞文化社에서 나온 『慶州先生案 五種』을 이용할 수 있다.

8) 慶州戶長案은 舊案과 新案이 있는데, 舊案은 1361년(恭愍王10)에 李弼을 비롯한 각각 4명씩의 戶長正朝, 攝戶長, 副戶長, 그리고 2명씩의 戶正, 副戶正,

이 <慶州司首戶長行案序>는 1361년(恭愍王10)에 당시 首戶長이었던 李弼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여기에는 『三國遺事』를 인용하여 辰韓 六部에서 高麗初에 이르기까지 慶州의 沿革, 州號를 慶州로 부르게 된 것, '堂祭'를 '戶長'으로 개칭한 것 등이 서술되어 있다.

이 문서는 지방제도의 일면, 특히 鄕吏의 명칭, 직급과 수효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史料的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문서의 중간 중간에 사용된 이두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이두에 대해서는 許興植(1988)에서 판독된 것을 李丞宰(1992)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 문서가 실린 慶州先生案은 1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본래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다.

(4) 至正二十一年辛丑正月日慶州司首戶長行案

州[叱段]三國遺事內開闢已來辰韓之地古有六部一曰中興二曰南山三曰長福四曰通仙五曰加德六曰臨川[等叱]六部祖前漢宣帝地[節]元年壬子三月朔各率子弟俱會閼川岸上議曰我輩上無君主民皆放逸盍覓有德人爲君主建邦設都時有一紫卵從天垂地剖其卵得童男形儀端正卵如瓢故姓朴卵生之時日月淸明故因名赫居世年至十三以五鳳元年甲子立國爲王國號徐羅或斯羅或雞林或新羅繼繼相承九百九十二年[是臥]后唐閔帝淸泰二年乙未[良中]第五十六王 太祖統合三韓[敎是]時率領百官郊迎順命始終輔佐[敎等用良]新羅[乙良]京號不動東京留守官州號[乙良]慶州[爲等如]設排[敎是旀]千丁已上[乙]東給[敎是遣]堂祭十[乙]

끝으로 '詔文州史孫'이라고 씌여진 李弼의 序文과 1281년(忠烈王7) 金成庇로부터 1713년(肅宗39) 崔俊渭에 이르기까지 432년간 총 256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新案은 1741년(英祖17)에 前戶長 李廷臣의 序文에 이어 李仁부터 崔炳敎에 이르기까지 총 161명의 역대 戶長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舊案의 기재 형식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금 전하는 慶州戶長案은 哲宗 10년경 前戶長 孫永謨 등이 舊本을 등사, 新本을 별도로 작성하고 여기에 序文을 붙여 祇林寺 龕室 중에 보관했던 것이다.(李樹健 1974 참조)

爻定[敎是良]　光宗朝[良中]堂祭[乙段]號戶長爻八[乙]制定[敎事是置](下五字缺)首戶長姓名[乙]順[音可]施行流傳[爲臥乎等](下四字缺)審難便[爲置有良ホ]一任[爲乎所][不喩是旀]年遠爲(下二字缺)[爲去乃]近來上戶長姓名[乙][科科以]推考行公次第[乙用良]具錄于后[爲臥乎事是等]今後[乙良]上戶長姓名及四祖掌印年月[幷以]施行傳於后生幸甚

慶州司

戶長正朝李 弼

(…중략…)

詔文州史孫

※ [ ]는 吏讀, ( )는 小字로 된 缺字數를 표시.

여기에 사용된 이두 중 '-是等' 외에 '-是臥'도 특이한 형태의 이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制定敎事是置'의 '敎事是置'는 그 뒤에 5字가 빠져 있고 '置'의 자형도 독특하여 판독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李丞宰(1992)는 '置'를 吏讀字로 보지 않아 이를 '敎事是 置'로 판독하였는데, 이 뒤에 글자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다른 이두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是置是亦', '-是置有亦', '-是置有等以', '-是置有臥乎所' 등과 같은 이두 형태를 고려해 본다면, '置'를 이두자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吏讀 解讀의 實際

3.1. 앞에서 이두 '-是等'이 나타나는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자료들에서 '-是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가. … 合田畓幷壹佰伍拾壹結參拾捌負[乙]賜與[爲臥乎事**是ㅊ**]子孫傳持鎭長喫持[是良於爲敎] <趙溫賜牌敎旨 8>

나. … [爲等如]賜給[爲臥乎事**是等**]子孫傳持[者] <曺恰賜牌敎旨 6-7>

다. … 各後所生[幷以]子孫傳持使用[爲良於爲]出納成給[爲臥乎事**是等**]右事須貼 … <尙書都官貼 108-9>

라. … 近來上戶長姓名[乙][科科以]推考行公次第[乙用良]具錄于后[爲臥乎事**是等**]今後[乙良]上戶長姓名及四祖掌印年月[幷以]施行傳於后生幸甚 <慶州司首戶長行案序>

여기에 나타난 '-是等'은 모두 '爲臥乎事'과 연결되어 '爲臥乎事是等'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爲臥乎事'은 다른 吏讀 資料들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吏文襍例』와 같은 후대의 이두 독음 자료에는 이것이 'ᄒᆞ누온일'로 읽히고 있어 '臥'의 실체가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9] 이를 'ᄒᆞ논일'로 읽고 그 의미를 '하는 일'로 파악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는 접사 'ᄒᆞ-'에 선어말어미 '-ᄂᆞ-'와 '-오-'가 차례로 결합하고 거기에 동명사어미 '-ㄴ'이 붙어 후행하는 명사 '일(事)'을 수식하는 즉, 'ᄒᆞ-+-ᄂᆞ-+-오-+-ㄴ # 일'의 문법적 구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臥'는 15세기 국어의 時相 선어말어미 '-ᄂᆞ-'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던 '內'의 후속형으로 생각되고 있다. '內'가 사용된 시기는 대략 고려 초기까지로 잡고 있는데, 조선 초기 자료에도 '內'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臥'가 '內'를 대신하여 쓰인 가장 앞선 자료로는 10세기의 <慈寂禪師碑>를 꼽고 있다. 그러나 '成**內飛**也'<新羅鍛興寺鐘 6>이나 '成造爲**內臥**乎亦'<慈寂禪師碑 2>에서처럼 같은 '-ᄂᆞ-'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飛', '臥'가 '內'와 함께 표기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들의 교체기에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중복형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눕다'라는 訓을 갖는 '臥'가 어떻게 '-ᄂᆞ-'를 표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되어야 한다. 이들 借字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李丞宰(1992), 朴盛鍾(1996), 裵大溫(1997) 참조.

여기서 동명사어미 '-ㄴ'이 별도의 吏讀字로 표기되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 보통 동명사어미 '-ㄴ'은 鄕歌와 口訣 資料들에서 각각 借字 '隱'과 'ㄱ'('隱'의 略字)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吏讀에서는 대개 동명사어미 '-ㄴ'을 표기하기 위한 별도의 吏讀字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10]

(6) 가. 爲白乎 ᄒᆞᄉᆞᆫ온
爲白乎事 ᄒᆞᄉᆞᆫ온일
나. 無乎事 무온일/업ᄉᆞ온일/업스온일/업ᄉᆞ온ᄉᆞ/어오론일/ᄒᆞ시온일
是乎味 이온맛
是乎所 이온바
다. 爲有在 ᄒᆞ잇견
爲有在果 ᄒᆞ이신견과/ᄒᆞ잇견과

이처럼 吏讀에서는 동명사어미 '-ㄴ'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 慣行처럼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李丞宰(1992:180~182)는 동명사어미 '-ㄴ'을 표기하는 吏讀字로 '乎(온)'을 상정하였다. 筆者는 鄕歌와 口訣에 나타나는 '隱', 'ㄱ'의 존재와 吏讀에 있어서 동명사어미 '-ㄴ' 앞에 사용된 선행요소들이 항상 동명사어미 '-ㄴ'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독자적인 형태소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고려

10) 徐鍾學(1995:154~155)에서는 동명사어미 '-ㄴ'을 표기하는 吏讀字로 '隱'의 略字로 쓰인 '尸'을 상정하였다. '尸'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高麗時代의 吏讀 資料인 세 개의 通度寺國長生石標銘(1085)이다. 특히 이것은 '-是於爲尸等以立'이라는 문맥에서만 나타나는데, 南豊鉉(1995)에서는 이 '尸'을 '了'로 判讀하여 동사 '몾-'으로 解讀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동명사어미 '-ㄴ'이라면, 비록 제한된 자료의 동일한 문맥에서만 사용된 것이기는 하나 동명사어미 '-ㄴ'을 표기하는 吏讀字의 典型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資料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大明律直解』의 吏讀 중 '爲在乙良'에 대해 '爲在隱乙良(7:3a-4)'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 비록 제한된 例이긴 하지만 동명사어미 '-ㄴ'을 표기한 것으로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해 볼 때,[11] 이를 생략 표기로 간주하고자 한다. 吏讀에 있어서 동명사 어미 '-ㄴ'을 표기할 수 있는 吏讀字로 '隱'이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생략 표기한 것은 자주 등장하는 동명사어미 '-ㄴ'을 매번 字畫이 많은 '隱'을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이 번거롭고 또한 동명사어미 '-ㄴ'은 비교적 그 출현 위치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吏讀에서 동명사어미 '-ㄹ'의 경우에도 吏讀字 '乙'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생략되는 例가 나타나는데(cf. 爲乎事 'ᄒᆞ올일', 爲去 'ᄒᆞᆯ가'), 이 역시 출현 위치의 예측 가능성에서 起因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3.2. '-是等'은 대략 그 문법적 구성을 繫辭와 연결어미의 결합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여기서 '等'은 연결어미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마도 그 형태는 'ᄃᆞᆫ/ᄃᆞᆫ' 정도로 생각되어 '等' 뒤에는 '-ㄴ'을 표기하는 '隱'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大明律直解』의 吏讀 중 '爲去等'에 대해 '爲去等隱(23:5b-4)'이 나타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명사어미 '-ㄴ'의 표기에 사용되었던 '隱'은 鄕歌와 口訣뿐 아니라 吏讀에서도 補助詞의 표기에도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等' 뒤의 '隱'은 본래 補助詞 '-ㄴ'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補助詞 '-ㄴ'을 나타내는 '隱'이 왜 생략되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데, 이는 아마도 동명사어미 '-ㄴ'을 나타내는 吏讀字 '隱'이 대개 생략되어 쓰인다는 사실, 그리고 吏讀에서 '等'이 쓰여 語尾를 형성한 경우 그것이 항상 '-ㄴ'을 동반한다는 예측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是等'이 어떠한 文法的인 構成을 갖는 吏讀인가를 살펴보도록

11) 예문(6)에서 동명사어미 '-ㄴ'의 선행 형태인 '乎'는 '是白乎旀(이숣오며)', '是白乎乃(이숣오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자적인 선어말어미 '-오-'로 기능하고 있다.

하자. '-是等'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표기된 자체 그대로 '-是等'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吏讀에서 동명사어미가 자유롭게 생략될 수 있다는 見地에서 '-是等'을 동명사어미가 생략된 형태로 보는 것, 세 번째는 '-是等'을 '-是去等'에서 '去'가 생략된 형태로 보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관점에서는 '-是等'을 繫辭 '是(-이-)'와 連結語尾 '等(隱)(-든)'이 연결된 '-이든'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표기된 형태 자체에 충실한 解讀으로 語尾 '-든'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이 때의 '-든'은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거든/-어든'의 '-든'으로 볼 수 있는데, 15세기 국어에서 '-거든/-어든'이 하나의 형태소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든'만을 독립된 語尾로 파악하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두 번째 관점에서의 解讀은 '-是等'을 '-이-+-ㄹ든'의 문법적 구성을 갖는 '-일든(*-是乙等隱)'의[12] 형태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繫辭와 동명사어미, 그리고 依存名詞와 補助詞가 결합한, 즉 '-이-+-ㄹ # ᄃᆞ+-ㄴ'의 'ᄃᆞ' 명사구 보문 구성이었던 것이 文法化하여 '-ㄹ든'의 통합형 접속어미를[13] 형성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拙稿 1997) 이것은 다음과 같이 향가와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2) '*'는 이두의 생략 표기로 인해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형태의 문법적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구성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한 원칙적인 표기 형태를 보인 것이다.

13) 鄭在永(1996)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합형어미'를 정의하고 있다.
통사적 구성이 특정한 환경에서 인접한 통사적 구성요소 간의 통합관계의 긴밀성 등으로 인하여 통합구조체로 인식되고, 이 통합구조체에서의 단어 및 형태소 경계가 소멸하면서 하나의 語尾로 굳어진 것이다. 통합형어미는 통사적 구성이 文法化하여 통시적으로 생성된 語尾이다.

(7) 가. 生界盡尸等隱 <總結無盡歌 1> ; 生界 다ᄒᆞᆫ든(生界 다한다면)
나. 此陁羅尼呪乙 誦持ᄒᆞ白ロナ尸入ㄱ 得ᄒᆞᄭᅩ 一切怖畏ㅣㄱ 一切惡獸ㅗ 一切惡鬼ㅗ 人非人等ᄒᆞㄱ 怨賊ㅗ 災橫ㅗ 諸惱ㅗノ尸乙 度脫ᄒᆞᄒᆞ 五障乙 解脫ᄒᆞᄀᆞ 二地乙 念ノ尸入乙 忘 不冬ᄒᆞᄀᆞᄒᆞナㅎヒㅣ <金光明經 09:16~18>
; (이 다라니呪를 외우고 지니면 능히 일체 두려운 것인 일체 惡獸와 일체 惡鬼와 人과 非人 등과 같은 怨賊과 재난과 모든 고통 등을 벗어나 五障을 해탈하며 二地를 念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두 번째 관점에서 파악된 통합형 접속어미 '-ㄹ든'이 通時的으로 15세기 국어의 '-거든'과 연계성을 갖을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윤희(1991)과 김영욱(1996)에서는 15세기 이전에 독립된 연결어미 '-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고, 徐鍾學(1995)에서도 고려시대 이두 자료에서 '-去等', '-乙等'과 함께 연결어미 '-等'을 상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용(1998)에 이어져 여러 차자표기 자료들을 통한 연결어미 '-든'의 존재 가능성이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되었다.

이용(1998)에서는 여러 유형의 차자표기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ㄹ든(-尸等隱, -尸のㄱ, -乙等)', '-든(-等, -のㄱ, -ホㄱ)', '-걸든(-去乙等)', '-거든(-去等)'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들간의 형태적, 시간적 선후 연결 관계를 설명하였다.

(8) [[[-ㄹ]#ᄃ]+-은] > [-ㄹ든] > [-든]
[[-거-]+[-든]] > [-거든] (이용 1998)

연결어미 '-거든'의 通時的 발달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여러 선어말어미 가운데서 왜 유독 '-거-'만이 '-든'과 결합하여 또 하나의 '-거든'

이라는 어미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ㄹ든'으로부터 발달한 '-든'이 왜 독자적인 연결어미로 얼마 기능하지 못하고 바로 '-거-'와 결합된 형태로밖에 남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비록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연결어미 '-거든'의 通時的 발달에 대한 (8)과 같은 해석은 여러 차자표기 자료들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국어 문법사의 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두 '-是等'은 계사 '是(-이-)'에 연결어미 '等(隱)(-둔/-든)'이 연결된 '-이둔/-이든'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두에서 '乙'이 생략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므로 이것이 '-일둔/-일든(*-是乙等隱)'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是等'을 계사 '-이-'에 동명사어미 '-ㄴ'이나 '-ㄹ', 그리고 의존명사와 대격조사가 결합한 '-이-+-ㄴ/-ㄹ # ᄃᆞ+-ㄹ'의 'ᄃᆞ' 명사구 보문 구성, 즉 '-인 ᄃᆞᆯ', '-일 ᄃᆞᆯ'의 구성 또는 'ᄃᆞ' 명사구 보문 구성 중 '-ㄴ ᄃᆞᆯ'이 문법화된 '-ㄴᄃᆞᆯ'에 계사가 연결된 '-인ᄃᆞᆯ'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두 '是等'이 나타나는 (5)의 예들을 살펴볼 때, '是等'이 사용된 구문이 대격의 명사구 보문도 아니고 [양보]의 의미를 갖는 '-ㄴᄃᆞᆯ'이 계사에 연결된 구문은 더 더욱 아니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배제된다.

3.3. '-是等'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은 이것을 '-是去等'에서 '去'가 생략된 형태로 보는 것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

(9) 가. 覺眞國師門徒[等乙]不動入院完護衆作法祝上[是在味]出納[爲臥乎事**是去等**]右事須貼 <白巖寺貼文>

나. … 各後所生[幷以]子孫傳持使用[爲良於爲]出納成給[爲臥乎事**是等**]右事須貼 … <尙書都官貼 108-9>

(9-가)와 (9-나)는 각각 <白巖寺貼文>(1357)과 <尙書都官貼>(1262)에서 이두 '-是去等'과 '-是等'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인 것이다. 이 둘은 거의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白巖寺貼文>이 2차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9-가)의 '是去等'이 당시의 모습 그대로 정확히 표기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한편, 『大明律直解』에도 이두 '-是去等'과 '-是等'이 함께 나타나는 예가 있다.

(10) 【私受公侯財物】

≪條文≫ 凡內外各衛指揮千戶百戶鎭撫幷總旗小旗等 不得於私下或明白接受公侯所與寶鈔金銀段疋衣服糧米錢物 若受者軍官 杖一百罷職發邊遠 充軍楹旗小旗罪同 再犯處死公侯與者 初犯再犯免罪附過 三犯准免死一次 若奉命征討 與者受者不在此限 <明律 23:6a-10~6b-5>

≪直解≫ 凡京外大小軍官[亦] [私丁]諸君宰相各處[以] 許送[爲乎] 金銀衣服錢物[等乙] 捧受[不冬爲乎矣] 捧受[爲在乙良] 軍官[**是去等**] 杖一百罷職遠處防禦[令是遣] 百戶統主[置]罪同[齊] 給與[爲在] 諸君宰相[乙良] 初犯再犯[**是去等**] 免罪[遣] 過名施行[齊] 三犯[**是去等**] 准免死一度[爲乎矣] 奉命出征時[**是等**] 與者受者不在此限 <明律 23:6b-5~8> ※ [ ]는 吏讀를 표시.

이것은 사사로이 公侯의 財物을 받았을 때, 재물을 받은 자는 물론 준 자도 그 상황에 따라 처벌을 규정한 항목이다. 이 '-是等'에 대해 安秉禧(1985:21)은 이것을 그 앞 부분에 중복되어 나타난 '-是去等'에서 '去'가 탈락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大明律直解』가 고려시대 吏讀 체계를 집대성하여 간행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15세기 이전의 국어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是去等'이 사용된 문맥과 '-是等'

이 사용된 문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14] 고려해 볼 때, 이 때의 '-是等'은 선어말어미 '-거(去)-'의 개입 없이 계사 '-이-'에 연결어미 '-든/-든'만이 결합된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것은 '-是去等'에서 '去'의 생략이라는 일반적이지 못한 생략 현상을 가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해준다는 면에서도 보다 나은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9)의 '-是去等'과 '-是等'도 그 차이를 '去'의 생략 여하에 두지 않고 선어말어미 '-거(去)-'의 개입 여하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是等'이 단순히 표기상 '-是去等'에서 '去'가 생략된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은 '-是等'과 '-是去等'의 분포를 시간적으로 추적해 봄으로써 보다 확실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2장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是等'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의 고문서 자료이다. 이에 비해 '-是去等'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많은 이두 자료들에서 그 존재를 계속 확인할 수 있다. 만약 '-是等'이 단순히 '-是去等'에서 표기상 '去'를 생략한 것이라면 '-是等'의 존재를 조선 후기까지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是等'과 '-是去等'이 표기상의 생략이 아닌 근본적으로 문법적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3.4. 이제까지 '-是等'이 어떠한 문법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두인가를 살펴 보았다. 끝으로 이 '-是等'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자.

(5)의 네 용례들에서 '-是等'은 거의 모두 유사한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무언가를 내려주거나(賜與·賜給),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出納

14) (10)에서 '-是去等'이 사용된 부분들이 처벌의 대상자를 나타내고 있다면 '-是等'이 사용된 부분은 처벌에 예외가 되는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형태가 사용된 문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成給), 또는 기록해 두므로(具錄) 이에 따라 시행할 것을 명하는 형식의 문맥이다. '-ㄹ둔(-尸等隱, -尸のㄱ, -乙等)', '-둔(-等, -のㄱ, -ホㄱ)', '-걸둔(-去乙等)', '-거둔(-去等)' 등이 기본적으로 '~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是等'도 '~이면'의 [조건]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의 예들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是等'을 '~이므로' 정도의 [원인]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다음과 같이 15세기에 기본적으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거든'이 때때로 [원인]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1) 商德·이 衰·ᄒᆞ**거**·든 天下·ᄅᆞᆯ 맛ᄃᆞ·시릴·씨 西水ㅅ:ᄀᆞ·ㅣ
져·재 ·ᄀᆞᆮᄒᆞ·니
麗運·이 衰·ᄒᆞ**거**·든 나·라·ᄒᆞᆯ 맛ᄃᆞ·시릴·씨 東海ㅅ:ᄀᆞ·ㅣ
져·재 ·ᄀᆞᆮᄒᆞ·니 <龍飛御天歌 제6장>

여기서 "衰ᄒᆞ거든"은 '衰하면'이라는 [조건]보다는 '衰하므로'라는 [원인]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ㄹ둔(-尸等隱, -尸のㄱ, -乙等)', '-둔(-等, -のㄱ, -ホㄱ)', '-걸둔(-去乙等)', '-거둔(-去等)' 등은 기본적으로는 [조건]의 의미를 갖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이 [원인]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연결어미에 나타나는 '-ㄴ'이 후에 연결어미 '-니'와 의미적인 연계를 갖는 것과[15] 기원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15) 한 예로 고려시대 음독구결에서의 연결어미 '-ㅁㄱ(-곤)'이 조선시대의 언해에서는 [원인]의 의미를 갖는 '-니'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是故… 汝今ㅣ 知見ㅣ 立知ㄴᆞᄒᆞ 卽無明本ㄴᆞᄒᆞ 知見ㅣ 無見ㄴᆞᄒᆞ 斯則涅槃ㅂᆞㅂ 無漏眞淨ㅁㄱ 云何是中ㅣ 更容他物ㄴᆞᄒᆞ <朴東燮本 楞嚴經 卷5, 1b:14-15>
是故로 汝ㅣ 今에 知見에 立知ᄒᆞ면 卽無明本이오 知見에 無見ᄒᆞ면 斯卽

본다.

이제까지 吏讀 '-是等'에 대해 그 解讀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한 잠정적인 결론은 '-是等'이 단순히 '-是去等'에서 '去'가 생략 표기된 형태가 아니라 계사 '-이-'에 연결어미 '-ᄃᆞᆫ(든)' 또는 '-ㄹᄃᆞᆫ(든)'이 결합된 형태라는 것이다. 사실상 연결어미 '-ᄃᆞᆫ(든)'이 결합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두에서 많이 나타나는 '乙'의 생략 표기를 염두한다면 '-ㄹᄃᆞᆫ(든)'이 결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으로서 필자는 일단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다음과 같이 '-是等'이 포함된 '爲臥乎事是等'의 讀音과 意味, 그리고 文法的 構成을 밝혀본다.

(12) 爲臥乎事是等
≪讀音≫ ᄒᆞ논 일이ᄃᆞᆫ(든), ᄒᆞ논 일일ᄃᆞᆫ(든)
≪意味≫ 하는 일이므로
≪文法的 構成≫ ᄒᆞ-+-ᄂᆞ-+-오-+-ㄴ # 일
+-이-+-ᄃᆞᆫ(든); *是等隱
+-이-+-ㄹᄃᆞᆫ(든); *是乙等隱

4. 結語

'-是等'은 비록 간단한 형태의 이두이지만, 이것이 국어의 文法史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是等'이 통합형 접속어미 '-ㄹᄃᆞᆫ(든)'의 通時的 발달 및 연결어미

涅槃無漏眞淨이니 云何是中에 更容他物이리오 <楞嚴經諺解 卷5, 6b:8-7a:1>

'-거든'의 형성에 관하여 고찰할 기반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연결어미 '-든(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ㄹ든(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 그것은 이 두에서 나타나는 '-ㄴ'과 '-ㄹ'의 생략 표기가 이러한 모호성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한편, '-是等'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의 古文書 자료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15세기 共時的으로 연결어미 '-든(든)'의 독립적인 쓰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든(든)'이 독자적으로 기능했었던 고려시대의 문법이 常套的 표현의 傳承이라는 고문서의 특성에 힘입어 조선 초기까지 그 모습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차자표기의 자료들에 대한 끊임없는 발굴 노력과 이들에 대한 입체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의 진행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국어의 옛모습을 조금씩 조명해 가는 성실한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金永萬(1980), 「儒胥必知의 吏讀 硏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김영욱(1996), 「14세기 문법형태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기림사본 '능엄경'을 중심으로」, 『한글』 233. 69-115.

金裕範(1997), 「<趙溫賜牌敎旨>의 吏讀 一考」, 제17회 구결학회 공동 연구회 발표문.

金泰均(1971), 「大明律直解 吏讀 形態分類」, 『論文集』(京畿大學校), 57-107.

南豊鉉(1990),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硏究-楞嚴經 記入吐의 表記法을 중심으로」, 『震檀學報』(震檀學會) 69. 75-101.

南豊鉉(1991), 「新羅 華嚴經寫經 造成記에 대한 語學的 考察」, 『東洋學』(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21. 1-29.

南豊鉉(1992), 「古文書의 吏讀 解讀-柳璥功臣錄券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

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1(통권 46), 93-108.
南豊鉉(1995), 「高麗時代 吏讀文 解讀 二題」, 『우리말 연구의 샘터』(연산도수희선생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659-668.
南豊鉉(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國語學』 28. 1-48.
南豊鉉(1997), 「淨兜寺造塔形止記의 解讀-高麗時代 吏讀硏究의 一環으로」, 『古文書硏究』(韓國古文書學會) 12. 1-50.
文化財管理局(1988),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 文化公報部.
裵大溫(1993), 『吏讀語彙論』, 螢雪出版社.
裵大溫(1997), 『吏讀用言의 活用語尾硏究』, 螢雪出版社.
朴盛鍾(1993a), 「朝鮮初期의 吏讀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文學과知性社. 46-55.
朴盛鍾(1993b), 「李和開國功臣錄券의 吏讀와 그 解讀」, 『古文書硏究』(韓國古文書學會) 4. 1-32.
朴盛鍾(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法制處編著(1979), 『古法典用語集』, 育志社.
徐鍾學(1995), 『吏讀의 歷史的 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安秉禧(1985), 「大明律直解 吏讀의 硏究」, 『奎章閣』(서울大學校圖書館) 9. 1-22.
安秉禧(1987), 『吏文과 吏文大師』, 塔出版社.
李樹健(1974), 「朝鮮朝 鄕吏의 一硏究-戶長에 대하여」, 『文理大學報』(嶺南大文理科大學) 2권 2호(통권3), 45-78.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太學社.
李榮薰(1997), 「朝鮮初期 5結字號의 成立過程-'趙溫功臣田賜與文書'를 중심으로」, 『古文書硏究』(韓國古文書學會) 12. 51-89.
이 용(1998), 「연결어미 '-거든'의 문법사적 고찰」, 제18회 구결학회 공동 연구회 발표문.
張東翼(1985), 「麗末鮮初 田畓·奴婢관계 古文書 硏究」, 『嶠南史學』(嶺南大學校 國史學會) 創刊號. 145-164.
장윤희(1991), 「중세국어의 조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國語硏究』(國語硏究會) 104.

장윤희(1995), 「吏讀에 나타난 國語 活用語尾의 體系와 性格」, 『전농어문연구』(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7. 63-89.
장지영 · 장세경(1976/91), 『이두사전』 정음사/산호.
鄭求福(1993), 「1406년 曺恰의 辭令狀에 대하여」, 『學藝誌』(陸軍士官學敎 陸軍博物館) 3. 1-10.
鄭在永(1996), 『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太學社.
千惠鳳(1972), 「貴重圖書 解題 朝鮮定宗下賜의 趙溫定社功臣錄券」, 『國學資料』(藏書閣) 創刊號. 6-8.
崔承熙(1989), 『韓國古文書 硏究(增補版)』, 지식산업사.
韓國學文獻硏究所(1982), 『慶州先生案 五種』(中世社會史資料集 Ⅰ), 亞細亞文化社.
許興植(1982a), 「'慶州先生案' 解題」, 『慶州先生案 五種』 亞細亞文化社. 3-11.
許興植(1982b), 「1262년 尙書都官貼의 分析(上)」, 『韓國學報』 27. 一志社. 20-49.
許興植(1982c), 「1262년 尙書都官貼의 分析(下)」, 『韓國學報』 29. 一志社. 55-86.
許興植(1988), 『한국의 古文書』, 민음사.
홍기문(1957), 『리두 연구』, 평양:과학원출판사.